

김재연 목사 지회장, 이원상 목사 명예이사장 위촉 기아대책, 남가주지회 설립예배 드려



미주한인국제기아대책 남가주 지회 설립예배 후 단체 사진촬영. © 이태근 기자

지구촌 굶주린 20억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해 남가주에 설립된 미주한인국제기아대책기구 남가주 지회 설립예배 15일 정오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미주한인국제기아대책기구 남가주 지회 설립위원장 김재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연회 한기형 감독의 설교, 사역안내, 위촉장 수여,

기아대책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기아대책 남가주지회장 김재연 목사와 명예이사장 이원상 목사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축사를 전한 씨드선교회 박신욱 목사는 “기아대책이 하는 일이 교회에서 외치는 행사가 아니라 진정 모든 이들이 동참하는 사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미주베델교회 정요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지구촌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고자 1971년 래리 워드에 의해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선교, 구호기구다.

〈이태근 기자〉



제61회 풀러신학대 졸업식이레이크애브뉴교회에서 열렸다

제61회 풀러신학대학교 졸업식 개최

제61회 풀러신학대학교 졸업식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파사데나에 위치한레이크애브뉴교회(Lake Avenue Church)에서 개최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풀러신학대

글렌 스타센(Glen H. Stassen, 기독교 윤리학)교수의 개회기도, 리처드 마우(Richard J. Mouw)총장의 환영 인사, 셔우드 링엔펠터(Sherwood G. Lingenfelter)학장의 특별상 수여식, 학위 수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풀러신학대는 이번 졸업식에서 목회학 석사 173명, 목회학 박사 90명, 철학박사 11명 등 총 78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태근 기자〉

클레어몬트신학교, 이슬람·유대교와 협력 논란

미국 연합감리교(UMC) 신학교인 클레어몬트신학교(Claromont School of Theology)가 최근 유대교, 이슬람교에 문을 개방

아주 클레어몬트로 이주한 1957년부터 에큐메니칼 비전을 채택하고 감리교인만이 아닌 침례교, 장로교 등 다양한 교단 출신의 학

ect)를 추진해 온 클레어몬트신학교는, 최근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대교아카데미(Academy for Jewish Religion), 남캘리포



클레어몬트신학교(Claromont School of Theology)

있어 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기독교 신학교로서의 정체성에 우려를 표현하는 교직원들도 있었다고 그는 밝혔다.

한편, 복음주의와 보수주의 교계가 클레어몬트신학교에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남침례교신학교 R. 앨버트 몰러 Jr. 학장은 “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포기에 가깝다”며 “복음주의나 정통 기독교의 이해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순현정 기자〉

보수주의 신학계, “기독교 신앙에 대한 포기” 비판

한 데 따라 현지 교계와 신학계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서부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클레어몬트신학교는 1885년 연합감리교 신학교로 개교했으며, 현재 소재한 캘리포니

생들도 수용하고 자유주의 노선의 신학 교육을 지향해 왔다.

2006년부터는 이에서 더 나아가 종교 간 대화와 협력 증진이 라는 새로운 비전에 맞춘 ‘유니버시티 프로젝트(University Proj-

니아이슬람센터(Islamic Center of Southern California)와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학생은 물론 교수진 교류를 협의했다고 지난 9일 현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이를 통해 이번 가을학기

부터 운영될 전망인 성직자 훈련 프로그램은 이들 3개 교육 기관의 대학원 과정 학생들이 동시에 이수하는 과목으로, 각 교육 기관에서 선발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신학자가 공동으로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제리 캠벨 클레어몬트 신학교 학장은 “(프로그램이) 각

자의 종교적 전통 안에 머무르면 서도, 자신과 종교가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이 세계의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캠벨 학장은 이 프로젝트가 2006년 시작된 때부터 일부 교직원들의 반대가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루엔
다닙니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파산법

-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 신용 문제 상담

이민법

-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 취업비자 & 취업이민 (EB1, EB2, EB3)
- ▶ 종교비자 & 종교이민, 가족이민
- ▶ 투자비자 (E2), 투자이민 (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 대학원 졸업 (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 (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 (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 (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IRVINE Office	SEOUL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904호 822-510-5200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 는 미국 젊은이들

“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아요.” 최근 들어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자신의 신앙적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유행 중인’

드러내 준다. 기독교 전문 설문조사 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200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18세에서 29세까지의 미국 젊은이들의 72%는 자신이

SBNR를 따르는 많은 젊은이들 중 하나다. 그는 “어떤 틀 속에 나를 한정시키는 것이 싫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내가 죽어 영원한 삶으로 접어

미국 예수회의 제임스 마틴 신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SBNR는 한마디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표현”이라며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이진 않다는 건 곧 현실에의 안주와 자기중심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종교적 전통과 가르침에서 단절된 채, 각자의 장소에서 신과 단둘이만 있을 수 있다면 그 신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라는 것이 그의 물음이다. “적어도 그 신이 가난한 자와 당신의 것을 나누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기를 힘들 것”이라고 마틴 신부는 지적했다. 신앙에 대한 어떤 신념을 뛰어넘어 패션, 음악과 같은 대중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은(spiritual but not religious)’ 젊은이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 굳이 교회로 갈 필요를 느낄까? 해변이든 어디든 자기가 있는 곳이라면 이들은 만족할 것이다. ©CNN 캡처 이미지

개인주의 성향 혹은 기존 종교에 대한 반항

표현이다. 그러나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은’ 상태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많은 종교인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 짧은 한 마디는 자신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 종교적인 해답을 찾지만,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종교에 소속되기를 싫어하는 젊은 미국인들의 성향을

“종교적이기보다는 영적이다”고 답했다. 줄여서 간단히 ‘SBNR’이라고도 일컫어지는 이같은 성향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며, 그들만의 세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형성해나가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히더 캐리우 역시

들 때 침례교도나 가톨릭교도, 또는 무슬림이라고 이름 붙여진 문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교리와 규범에서도 자유롭고, 자신이 곧 그 기준이 되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추구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견해다.

문화로도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는 이같은 흐름은 종교적인 것보다는 확실히 ‘쿨하게’ 보이는 하는 것이다. 반대로 한 종교에 속하고 그 종교 안에 신실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뒤따른다. 마틴 신부는 “사람들은 종교를 싫어한다. 그러나 모든 진실한 것이 그렇듯, 종교는 힘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순현정 기자)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왼쪽), 캐서린 제퍼츠 서리 미국성공회 수좌주교. ©크리스천투데이 DB

지난 5월 두 번째 동성애자 주교 임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국 성공회가 세계성공회의 제재에 당면했다. 이번 주 초 세계성공회는 현재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대화에서 미국성공회를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세계성공회 총무 케네스 키어런 주교는 미국성공회에 보낸 서한에서 “대화 참여에 대한 (미국 성공회의) 회원 자격이 정지됐다”는 세계성공회의 입장을 밝혔

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는 보도했다. 이같은 제재는 지난 5월 세계성공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성공회가 12번째 동성 연인과 동거 중인 메리 글래스폴 사제를 부주교로 정식 임명한 데 따른 것으로, 세계성공회 수장인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스 대주교의 평소 온건주의적 성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성공회 전문가

○ 윌리엄스 대주교 이례적인 강력 제재 나서

동성애 허용 美 성공회, 교단 회원 자격 일부 상실

들은 평가하고 있다. 2003년 11월 동성애자인 로빈슨 사제를 주교로 임명하면서부터 시작된 미국성공회 내 보수파와 진보파 간 갈등은 결국 분열을 낳아, 보수파들은 미국성공회에서 탈퇴해 북미성공회를 새롭게 조직했다. 세계성공회 내에서도 미국성공회의 동성애 포용 정책은 보수파 회원들의 극렬한 반대를 불러와, 전체 7천7백만여 성공회 회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3천5백만여 보수파 회원들을 대변하는 세계성공회미래회의(GAFCONO)의 결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윌리엄스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성공회 리더십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미국성공회는 동성애자 사제 허용 외에도 교회 내에서 동성 커플들을 축복하는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2003년 통과시키기도 했으며, 세계성공회 내에서는 미국성공회 외에 캐나다 성공회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진보파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되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임을 인정해

야 한다’는 입장의 보수파 간 갈등은 따라서 지역적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교회, 그리고 기타 세계성공회 간의 갈등 구도로 대표되어 왔다. 급기야 지난 2005년부터 램버스회의(세계성공회 주교 회의로 10년에 한번 개최)가 열린 2008년까지는 미국-캐나다 성공회와 기타 세계성공회가 일시적으로 분리 운영되기도 했다. 교단 분열이라는 극단적 결론을 피하기 위해 당시 램버스회의에서 윌리엄스 대주교는 이 문제에 대해 모라토리엄(유예 기간)을 선언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는 지난

달 “모라토리엄 위반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힌 윌리엄스 대주교의 언급을 통해 볼 때, 이번 미국성공회의 두 번째 동성애자 주교 임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가 즉각적인 제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성공회 대표인 캐서린 제퍼츠 서리 수좌주교는 세계성공회측에 “이같은 조치는 세계성공회는 편협함을 드러내는 실수다. 모두가 한 문제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불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순현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번호 : (213) 739-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칼라를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위치-미윌리콘드상가2층
일서+웨스턴코너

■ [이민교회 문답] 열네번째 세리토스장로교회 김한요 목사

“부흥이라는 파도 준비는 예배회복 통해”

이민교회는 세대교체, 교회연합, 2세 사역, 부흥 등 다양한 주제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본지는 목회자의 여론을 수렴해 이민교회의 미래와 나아갈 바를 조망하고자 한다.

은 통치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고 이들이 인해 사회가 하나님 나라화 할 때 이때가 부흥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목회자의 교단 배경이나 교세, 목회 연수와 관계없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부흥의 의미가 사회의 변화가 아닌 교회성장으로 변했습니다.

열네 번째 만남은 세리토스장로교회 김한요 목사다. 김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에서 M.Div를 마쳤으며, 메사추세츠 엠메스트 한인교회와 커네티컷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자로 사역했다.

의미의 변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의 흐름입니다. 큰 교회가 세계선교 현장에서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크기에 사회의 변화에서 큰 교회의 영향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방향으로 의미가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까. 그중 부흥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하면 대개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평양대부흥 때 일어난 일들 중 교회의 성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부흥을 오용하게 됩니다. 부흥은 뺨치기가 아니고 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면 대개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평양대부흥 때 일어난 일들 중 교회의 성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 무너졌다는 말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흥하면 대개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평양대부흥 때 일어난 일들 중 교회의 성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양대부흥이 있는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라는 마디를 넘어가면서 교회에 나오지만 가족이 가니 따라가는 이들 혹은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이른바 쉐네이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흥하면 대개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평양대부흥 때 일어난 일들 중 교회의 성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부흥을 오용하게 됩니다. 부흥은 뺨치기가 아니고 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양대부흥이 있는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라는 마디를 넘어가면서 교회에 나오지만 가족이 가니 따라가는 이들 혹은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이른바 쉐네이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흥하면 대개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평양대부흥 때 일어난 일들 중 교회의 성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부흥을 오용하게 됩니다. 부흥은 뺨치기가 아니고 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면 대개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평양대부흥 때 일어난 일들 중 교회의 성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부흥을 오용하게 됩니다. 부흥은 뺨치기가 아니고 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그리운 정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고 예배가 한국적으로 흘러 모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하나님과 죄인을 만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세리토스장로교회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말씀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순서가 예배 때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무장하고 다시 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순서가 예배 때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무장하고 다시 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순서가 예배 때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무장하고 다시 나가야 합니다.

-이민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2세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한인들은 1세와 2세라는 레이어로 가져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소위 2세를 위한 사역 모델은 다 해봤는데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그 레이어를 거두는 것은 교회학교가 할 것입니다.

문화적 언어적인 차이가 있음을 서로가 인정하고 교회학교를 같이 해야 합니다.

1세와 2세 자녀의 비율에 따라 규모와 책임, 재정을 배분하여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가족이 되는 것은 문화, 인의 장벽으로 인해 마음 문을 닫지 않아 가능합니다. 2세 사역자의 경우 사역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에서 출대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덧붙여 2세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에 단순히 EM이 없어서 자녀가 다른 교회에 간다면 이견 비극입니다. 교회에서는 자녀들에게 EM사역자의 비전을 주고 사역자로 키워야 합니다.

학사 8명, 석사 24명에게 학위 수여 미주장신대, 제30회 학위 수여식 가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김인수 목사) 제30회 학위 수여식이 지난 5일 오전 10시 본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학위수여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해외장로회 총회장 정해진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2부에서는 시상, 총장 김인수 목사의 격려사, 기념품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미주장신대 제30회 졸업자들

자마, 세계지도자개발학교 개최

자마(대표 김춘근 박사)가 오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차세대 리더 양육을 위한 세계지도자개발학교(GLDI,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를 Vanguar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개최한다.

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인격과 리더십 개발한다. 자마 측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에 흠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 지도자의 잠재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국제제자훈련원 ‘사역훈련 세미나’

국제제자훈련원이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사역 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이민교회 목회자 중 사역훈련을 현재 실시 중이거나 앞으로 실시 예정인 이들을 초청한다”며 “제자훈련을 마친 후 사역훈련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회자들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로는 국제제자훈련원 김명호 목사와 김건우 목사, 김홍장 전도사가 나서며 세미나 대상은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수료자다. 등록처: 국제제자훈련원 (714-635-3000) (지재일 기자)

HANSAMIN website: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목사) · 오렌지카운티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목사) · 남가주 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목사) 공동주최. 전 미주와 캐나다 한인교회는 기쁨의 한 주일을 “Blessing Day”로 정하고 집중전도합니다. “네 전도의 손을 내밀라 회복시키리라” [마 12:13]. 선유권 목사 초청. 태신자집중 관계전도 8주간 PROJECT. 날짜: 2010년 6월 28일(월) 오후 2시(등록)~30일(수) 저녁 6시(종료). 장소: 미주 평양교회(담임: 송정명 목사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한인목회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L.A. 동양선교교회에서 분례선데이 컨퍼런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태신자집중 관계전도 세미나는 3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태신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귀중한 관계를 형성하는 전도훈련을 가진 목회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태신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귀중한 관계를 형성하는 전도훈련을 가진 목회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태신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귀중한 관계를 형성하는 전도훈련을 가진 목회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박인곤 회장 '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 세워 사역자 양성할 것

스포츠...중남미 선교 교두보를 꿈꾸다

2010 월드컵 남아공 대회의 개막으로 전 세계가 축구에 열광하는 계절이다. 언어와 인종, 문화를 넘어 스포츠는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다가가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레저문화로 자리 잡았다.

스포츠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직접 선교가 불가능한 지역의 소중한 선교의 접촉점이 되고 있으며, 특별히 태권도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중요한 선교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멕시코에서는 한 선수가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세계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태권도를 활용한 선교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재미태권도협회 박인곤 회장은 '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Global Mission Taekwondo Academy)'를 멕시코에 세우고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역에서 추천받은 청년 50여명을 선발해 태권도 선교 사역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일은 전 세계 모든 선교자를 모으고뱅크화하여 공급하는 선교기구 '글로벌 비전뱅크(Global Vision Bank)'의 중남미 선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멕시코 안세네다 지역에 세워질 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는 중남미 지역 목회자들로부터 건강한 신앙과 신체를 가진 청년 50명을 추천받아 학비

와 숙식을 전액 지원하여 훈련시킨다. 3년 동안 신학과 선교를 기본으로 태권도, 합기도, 활법(경혈지압 및 척추교정 요법), 마사지 등 특수 분야를 훈련받게 된다.

박인곤 회장은 "1차 목표는 중남미 태권도 선교사들을 세우는 것"이라며 "비자문제로 미국에 들어오기 힘든 중남미 지역 사관생도들을 위해 사관학교 장소를 멕시코 안세네다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인곤 회장은 "이미 멕시코 안세네다 지역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다"며 "새로운 선교단체를 만들어 독자적인 선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자 한다"며 분명한 선교원칙을 밝혔다.



박인곤 회장(좌)과 이길소 선교사(우). © 박상미 기자

글로벌비전뱅크 이길소 선교사는 "어느 선교지든지 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는 섬기려 들어가는 것"이라며 "태권도를 선교에 적용시켜 선교를 더욱 극대화하려는 것이 목표"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길소 선교사는 "앞으로 글로벌비전뱅크의 남미 선교를 주관할 선교센터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세워질 전망"이라며 "이처럼 확산될 중남미

선교에 있어 멕시코에 세워질 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는 남미 선교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선교 네트워크를 위해 박인곤 회장과 이길소 선교사는 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난 10일 멕시코를 방문했으며 태권도 도장 훈련원,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등 종합센터 형식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길소 선교사는 "오는 8월 7일~8일까지 브라질에서 1,500명 규모의 초교과 남미선교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선교대회에 태권도 지도자들을 함께 초청해 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와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미 기자)

"KPCA 세계 향해가는 총회 될 것"

해외한인장로회 제35회 총회장 정해진 목사가 "세계를 향해가는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회장은 지난달 19일 한국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센터에서 열린 임원교제 후 이같이 전했다.

귀국 후 정 총회장은 세계를 향해가는 총회를 위한 계획 5가지를 밝혔다.

정 총회장이 전한 총회 발전 계획은 >노회 확장 > 한국 총회와 유대관계 강화 > 각 지역 교회협의회와 유대관계 강화 > 타교단과의 협력 등이다.

정 총회장은 "총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회 소속 교회가 건실하게 자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노회는 소



해외한인장로회 제35회 총회장 정해진 목사. ©이태근 기자

정해진 총회장, 총회 발전 계획 5가지 전해

속교회를 건실하게 세우는 방안을 찾아야하며 이를 위해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울 것이다. 아울러 영여권을 위한 영여노회와 현지의 사정으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노회를 대비해 중국노회, 동남아시아노회 등을 설립 총회 발전을 꾀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 총회장은 선교 확장을 위해 '각 지역에 있는 협의회와 협력하며 타교단과의 오픈을 통해 선교에 매진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통합 총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총회장은 "이번 총회는 행사가 아니라 조국을 바라보며 향수에 젖어 있을 동포들을 위해 형제 교단이 초청해 열렸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온 후 기쁨을 맛봤듯 참여한 총대들이 총회에 참여한 의미를 가지고 총회일과 사역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태근 기자)

6.25 60주년 교회연합 구국기도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는 오는 24일(목) 오후 7시 30분 빛과소금교회에서 6.25 상기 60주년 교회연합 구국기도회를 개최한다.

기도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 예배 시간에는 오세훈 목사(세계소망교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최순길 목사(LA 임마누엘교회)의 기도, 석

대운 목사(세리토스동양선교회)의 설교, 빛과소금교회 성가대 찬양 시간이 마련된다. 2부 조국을 위한 기도 시간에는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과 평화적 통일, 조국교회와 목회자, 대통령과 청와대 위장자 등을 위한 기도를 드릴 예정이다.

3부 기념식에는 지용덕 목사(미주양곡교회, 남가주기독교교

회협의회 회장), 조주호 목사(샌디에고새생명교회, 미국육군재향군인회 회장), 이정현 목사의 인사, 김재연 목사(세계비전교회)의 축도 등의 순서가 마련된다.

빛과소금교회 (310) 326-0300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지재일 기자)

남가주광염교회, 창립감사 부흥회 개최

남가주광염교회(담임 정우성 목사)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창립감사 부흥회를 개최한다.

감사로는 대구 서성로교회 김장교 목사가 나서며, 김 목사는 '행복하려면, '여호와 낫시', '나의 목자', '손을 드는 사람', '신앙인의 축복' 등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 정우성 목사는 "창립감사 부흥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은혜도 받고 좋은 만남도 가지

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가주광염교회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성장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위해 창립됐다.

(이태근 기자)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총회 직영 신학대학

2010년 여름계절학기

< B.A. 과정 >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Schedule. Courses include 동양철학개론, (이민)사회학과 이민 공동체, 기독교 예배, 목회사역(영어 강의), 자연과학개론.

< M. Div. 과정 >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Schedule. Courses include 성령신학과 은사, 기독교 교육, (요한)계시록, 상담과 자기성품 이해, 조직신학 II, 교차 문화적 교회개혁, 성서, 여성, 여성신학, 교회와 선교, 멘토링과 은사개발, 신약신학.

- 주간 : 오전 9시~오후 5시
야간 : 저녁 7시 30분~11시

2010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학제

- 학사(BA): 128학점 - 교역학석사(MDiv): 98학점
- 교회음악 부전공 교역학석사(MDiv. in Church Music): 98학점 = 30학점(교회음악) + 68학점(일반신학과목)
- ESL(Level Test 실시)

접수 및 개강일

- 접수마감일 : 2010. 8. 13 (금)
- 개강일 : 2010. 8. 30 (월)

구비 서류

입학원서, 담임목사 추천서, 재정보증서 (이상 본교양식 웹에서 다운 가능) 최근 명함판 사진(2매),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영문 각 1통)

특전 및 장학금

- 1. 본교 졸업생들은 해외한인장로회(KPCA)의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본교에서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마친 후, 한국의 예장 통합 목사고시를 치를 수 있으며, 본 교단 소속 목회자는 예장 통합 목사로 이명이 가능함.
3. 각종 장학금 혜택이 있음. (교수, 교역자 자녀, 부부학생, 근로, 동문회, 산동회, 여성교회, 지교회, 지정 장학금 등)
4.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5. 1.5세와 2세를 위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신학수업 개설.

전임교수 모집

< 지원 자격 >

-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사
- 현재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는 아니지만 채용 후 본 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
- 구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분야 Ph.D. 소지자 중 1명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 구비 서류 >

- 이력서- Ph.D. 학위 사본
- 학위 논문 표지, 목차 및 요약(abstract)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 신대원(MDiv)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 교수 추천서와 담임목사 추천서 각 1통
- 신앙고백서(1-2 페이지) -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 접수 마감일 >

2010년 6월 30일 (수)

< 기타 문의 >

이상명 교무처장 Tel. (562) 926-1023 Ext. 302

목사(후보자) 교단 특별교육

교육일정: 2010년 6월 7일(월)~18일(금)

Table with 3 columns: Course Name, Date, Time. Courses include 한국교회사, 교회헌법 및 정치, 장로교 신조학.

- 장소: 본교
- 구비서류: 입학원서, 노회장 추천서, 명함판 사진 2매,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목사안수증서 복사본
- 공지사항: (1) 1.5세와 2세를 위해 통역 제공. (2) 한국교회사 과목을 이미 수강한 이는 성적표 제출로 대체. (3) 장로교회에서 안수 받은 목회자는 장로교 신조학 면제.
- 수업료: 전형료 \$100, 과목당 \$400.

14일 엠팍극장서 시사회 열고 신현원 감독 간증도

‘소명2’ 모겐족의 월드컵 25일 개봉

태국의 모겐족 아이들에게 축구 가르치는 강성민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소명2(감독: 신현원)’가 6월 25일 LA 엠팍극장에서 개봉된다.

LA 엠팍극장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전한 소명2 제작 배경과 간증이다.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전편에 비해 기독교적 색채가 다소 절제된 소명 2는 좀 더 많은 일반인들이 보게 하기 위한 배려다.



모겐족과 함께 찍은 사진

1980년대 세계적인 모기축구의 일인자로 이름을 떨쳤던 강성민 선교사는 1985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1995년 태국으로 들어간다.

우선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운동장에 모아 함께 운동하고 이어 교회로 인도해 예배와 수련회를 통한 영적 훈련을 진행한다.

생각하게 하는 영화다. LA지역 한인목회자들이 주로 참석한 시사회에서 그는 “선교란 무엇인지, 나아가 이 시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명... 열악한 제작 환경에서 자비를 들여가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신현원 감독은 기독교 방송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했다. S방송사에서 세상의 프로그램 제작하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고민하던 중 소명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

소명2 모겐족의 월드컵 뒷이야기... 신현원 감독은 이미 세 번째 작품을 시작했다.

올해는 2010 남아공 월드컵 대회가 있는 해로 신 감독은 ‘스포츠’, ‘장애’, ‘도전’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기획을 시작했다.

신현원 감독은 기독교 방송인으로서의 비전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방송과 매체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함께할 수 있는 연출자 후배들을 키워내는 것이 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을 만들어 가르치며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공을 가지고 놀기만 좋아했던 모겐족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강성민 선교사의 이야기는 선교란 무엇인지,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등을 짚어보게 한다.

또 다른 소명을 위해... 신현원 감독은 4월부터 촬영을 시작한 3편은 네팔에서 의료 사역하고 있는 77세의 선교사다.

신현원 감독은 기독교 방송인으로서의 비전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방송과 매체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함께할 수 있는 연출자 후배들을 키워내는 것이 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리 가족의 가장 특별한 여름방학 만들기



(왼쪽부터)한인가정상담소 크리스틴 김 카운셀링 매니저, 민들레 라이프코칭센터 김나미 디렉터, 한인가정상담소 코니 정 소장.

한인가정상담소는 오는 6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무료 여름캠프, ‘우리 가족의 가장 특별한 여름방학 만들기’를 개최한다고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는 2010년 하반기 정선건강, 카운셀링 관련 유료 세미나를 마련한다.

7월 22일(목), 29일(목)에는 대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10~12학년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정식적인 부분을 성장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부모와 가족을 떠나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감정적 갈등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비용은 \$20.

부모와 가족을 떠나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감정적 갈등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비용은 \$20.

9월 9일, 16일, 23일, 30일(목)에는 감정 조절 프로그램 ‘내 안에 화 Cool하게 조절하기’세미나가 마련되며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다. 비용은 \$40.

한인가정상담소 6월 23일부터 여름 캠프 개최

6월 23일 ‘자녀들의 성격을 알면 양육이 즐거워진다’라는 주제로 학부모 세미나를 인도하는 김나미 박사(민들레 라이프코칭센터, 교육 상담학)는 “MBTI 적성검사를 활용해 자녀의 성격을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 맞춤형 식으로 세미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13-389-6755 / www.kafscia.org (지재일 기자)

풀러한인 M.Div동문회, ‘풀러 포럼’ 열어

풀러한인 M.Div동문회가 지난 14일 오전 9시 한인커뮤니티교회(담임 조경현 목사)에서 풀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동양사상과 포스트모던을 넘어서서 크리스찬 영성으로’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풀러신대학원 신학박사 조경현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조 박사는 한인의 문화적 뿌리가 되는 동양사상을 개관적으로

살펴보고 포스트모던 문화의 장단점 살펴보기 및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역자의 길을 모색했다. 강의 1부에서는 동양사상의 특징과 한계, 동양사상이 이민목회에 남아있는 잔재를 넘어서는 길을 조명했으며, 2부에서는 포스트모던의 문화적 특징과 한계, 포스트모던의 문화적 도전을 넘어서는 길을 모색했다.

3부에서는 이민목회를 진단하



지난 4월 열린 풀러포럼 참석자들.

고 크리스찬 영성으로 행복한 목회의 출구와 나아가길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목회현장을 재조명해보고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 회복이 당면 문제임을 보고 오늘의 시

대적 흐름과 요청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풀러포럼에 앞서는 ‘지역 교회의 부흥을 위한 리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풀러포럼이 열렸다.

(이태근 기자)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6월 21일 (월).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트)

제3회 청운교회 장학생 선발. 청운 교회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대상 |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자격 | 일반 장학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목회자 자녀 장학금: 목회자, 선교사가정의 자녀 및 신학생. 제출서류 | 1. 신청서 2. 본인 에세이 (Letter size 2장 이하) 3. 증빙서류. 접수마감 | 2010년 7월 24일. 접수처 및 문의 | 우편접수: 청운교회 장학위원회. THE GREAT VISION CHURCH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90029. 전화 문의: (323) 667-9920, (213) 675-8291.

'나라가 없어질라' 교계, 출산장려국민운동 발족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총재 조용기 목사)'가 출범했다.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지도자들

합해서 있는 힘을 다해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사람에게 '당신도 하나 낳지'라고 하자 '분위기가 만들어 달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를 꺼낸 조목사는, "국가와 사회가 육아·교육비 부담 등을 적극 도와 출산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이 15일 프레스센터에서 1,200여명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6월 15일 발족 행사와 동시에 덕수궁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엄마랑 아빠랑 가족사랑 행복 나들이' 덕수궁 무료입장 행사가 펼쳐졌다. 참여하는 부모와 아이, 임신부 등 도착순 1천명에게 기념품이 제공되며, 이벤트와 추첨을 통해 동남아 여행항공권과 유아용품 등 푸짐한 경품과 선물을 주는 행사도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여년 이상 저출산이 계속되어 최근 4년째 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출생아수는 1980년의 87만명에서 47만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돌봄에 역점을 두고, 국내외 출산장려 성공사례 등을 조사 및 연구하여 홍보할 방침이다.

〈류재광 기자〉

세계 최저 수준 출산을 해결 노력

1,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영부인 김윤옥 여사도 함께 자리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동 본부 김삼환 목사의 개회사, 본부장 오정현 목사의 경과보고, 총재 조용기 목사의 대회사, 김윤옥 여사의 격려사, 고문 이광선 목사와 송자 이사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이어 주요 참석자들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장려운동이 신바람 나게 해 달라"고 했다. 이날 명예총재로 추대된 김윤옥 여사는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양보하는 미덕 등을 배우는 것을 보았다"며 "자식을 많이 낳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고 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사회와 개인을 넘어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범국가적 운동이 될 것"이라며 "지금 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했다.

2부 행사에서는 텔런트 유호정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소강석 목사가 축시를 낭독했으며, 특별시상과 문화공연 등이 있었다. 특별시상에서는 다복상(多子녀), 다사랑상(多愛양), 화목상(多문화) 등을 시상했으며, 5남 8녀를 낳은 경북 구미 황산교회 김석태 목사 가정이 다복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CTS 주도로 출산 장려 위한 범국민운동 위해 출범 영유아 돌봄에 역점 두고 정책 연구해 제시할 예정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는 지난 수 년 동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CTS기독교TV의 주도로 조직됐다. CTS기독교TV는 2006년 1월 20일 생명과희망의

네트워크를 출범시킨 바 있으며, 출산 장려를 위한 범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날 동 본부를 확장 출범했다. 동 본부는 많은 기업의 참여,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출산율과 연관된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연구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출산하는 가정들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격정 없

한기총 3대 개혁안, 만장일치로 실행위 통과



이광선 대표회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최성규 변화발전위원장이 며칠 전 명예회장들과의 논의에서 수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대표회장 임기 2년 단임제 등 골자

한기총 3대 개혁안이 진통 끝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실행위에서 통과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이하 한기총)

는 11일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지난 5월 25일 정회했던 실행위원회를 속개하고 정관 및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안은 지난 회의 때 제시됐던 개정안에서 명예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수정된 것으로, 이날 실행위에서 몇몇 조항에 축조를 거쳐 통과됐다. 수정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에서 "2년 단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과, 선거 방식에 있어 "간접방법(불, 구슬 등)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대의원들에게 대표회장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 외에 신학 및 이단연구위원회를 신학 및 이단 대책위원회로 수정하고 정기총회를 "매년 11월 하순에 소집한다"에서 "매년 1월 하순에 소집한다"로 수정하는 것 등의 변화가 있었다. 〈류재광 기자〉

바이블 엑스포, 저작권 소송 승소... 준비에 탄력

엑스포측 "논란 종식될 것, 행사 준비에 만전 기하겠다"

저작권과 실현 가능성 논란을 겪었던 'The BIBLE EXPO 2010'(더 바이블 엑스포)가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판사 이병로)는 최근 (주)태원예능이 더 바이블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주관사 (주)더바이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태원예능)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10카합551).

(주)태원예능(대표 정광택)측은 지난 4월 더 바이블 엑스포측을 상대로 ▲더바이블엑스포 기획서의 배포 및 공중 송신 금지 제품 및 그 결과물 점유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태원예능이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슈퍼바이블 엑스포' 기획서의 저작권은 오히려 이원진 더 바이블 엑스포 조직위원회 본부장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은 바이블 엑스포 조직위가 엑스포 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유치, 구조물의 설치 및 제작 작업 착수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별도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서와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태원예능의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더 바이블 엑스포측은 "이번 판결로 일부 교계를 중심으로 있었던 행사에 대한 논란이 확실하게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생명의 빛, 사랑의 빛, 희망의 빛'을 주제로 한 더 바이블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기독교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이를 널리 알려 생명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빛을 전하자"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으며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인천 송도센트럴파크(100,000㎡)에서 열린다. 예매문의: 02-541-1100 홈페이지: www.biblexpo2010.com 〈류재광 기자〉

주택 차압/퇴거 중단

-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
- 은행에서 Notice of Default, Foreclosure Intention, Trustee Sale 통보 받은 분
-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숏 세일(Short Sale) 진전이 없어 불안하신 분
- 이미 융자 조정, 숏 세일 시도했었으나 실패해서 차압이 임박한 분
- 숏 세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시 집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분
- Foreclosure(차압)이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을 기다리고 계신 분
- 세컨 홈, 4 Unit, APT, 상업용 건물, 교회...
- Rent로 살던 집이 숏세일이나 은행에 차압(Foreclosure)이 되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분

융자 조정 (후불, 미주 전역)

- 현재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으나, 크레딧 손상 없이 페이먼트를 낮추고 싶은 분
- 변동 이자 페이먼트(Option Arm)를 내고 있어서 원금이 늘어나 불안한 분, 30년 고정 프로그램으로 재융자 하고 싶으신 분(NO Tax, Bad Credit OK)
- Obama 법에 의해, 융자 원금 삭감 가능 (예: 2차 론의 경우, 18만불에서 2만불만 내고 16만불 탕감 받음, 사무실 방문시 모든 성공사례들을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NO...NO Short Sale : 저희는 절대로 숏 세일을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Paul Lee (폴리)
213-248-9297

2010년 봄학기 학생모집

월드 크리스찬 신학대학/대학원

World Christian Theology & Seminary

이 불경기에 아직도 비싼 학비를 내고 공부하십니까?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무료)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정규 신학 대학으로 초대합니다.

대학부(B,A)	대학원(M.Div)	박사원(Doctor)	통신 학부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입학자격: 4년제 대학	입학자격: 석사 학위 소유자	(Department of Home Study) 대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통신으로 수업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학부입니다. (미국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모집학과: 신학과, 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선교학과, 기독교 상담학과	모집학과: 신학과, 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선교학과, 기독교 상담학과	모집학과: 신학박사, 종교 교육학 박사, 상담학 박사, 선교학 박사, 명예 박사 수여도 가능합니다. (특별 상담 가능)	

본교 특징 (수시입학 가능)

1. BPPVE와 ABHE 인가를 받은 정규 대학교입니다.
2. M.Div 졸업자는 본 교단에서 목사 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 대학부 만은 전액 장학금을 드립니다.
4. 의식주 문제있는 학생 해결
5. 여학생을 지원하는 학생 장학 지원
6. 선교사(약기, 성악) 지도원장 이수과목 수료후 자격증 발급 및 사역 지원

구인모집 ◆ 학교 행정업무 보조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 및 컴퓨터 능한자 (40세 미만 환영)

교수 채용 공고 아래와 같이 강의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교수님들을 초빙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신학대학 :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 상담학
음악대학 : 음악이론, 지휘법, 건반악기, 작곡
선교대학 : 선교학, 기술선교(의료), 찬양운동, 신문, 장애인선교, 특수목회대학원 : 교도소선교, 양로원선교, 경찰선교, 헬터선교

자 격 : 해당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수여자로 세례교인 이상
제출서류 :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추천서 / 제출시간 : 2010년 8월 20일까지
제 출 처 : World Christian University 2716 Ellendale Pl., LA, CA, 90007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함)

학교 (323)734-0227 미국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단 (323)734-2300
교무처 직통 (213)725-3007, (323)734-4599 / 2716 Ellendale Pl., LA., CA 90007

“작다는 건 인간의 표현, 겸손하고 당당하라”

“작다고요?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각자 달란트 주신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교회 목사님들이 더 행복한 목회 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의 권면이 아니었다. 작은교회 목회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감사함과 당당함이 가득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 이하 한복협)는 ‘작은교회들을 격려하며 함께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6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11일 서울 도곡동 강변교회(담임 허대성 목사)에서 가졌다.

한복협은 지난해 6월에도 작은교회 목회자 초청 위로행사를 개최했다. 한복협 김명혁 회장은 은퇴 이후 전국 작은교회들을 돌며 요청이 오면 설교와 부흥회로 봉사하고 있으며, 김 목사의 이같은 경험은 이러한 행사로 발전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108명의 작은교회 목회자 및 사모들이 방음해 이 중 10명의 목회자들은 각각 2분씩 작은교회를 목회하면서 겪는 ‘보람

과 고충, 그리고 청원의 말씀’을 나눴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10명의 목회자들은 각자의 사연을 전했다. 모두들 “어렵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격려와 위로,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김상복 목사는 “대형교회는 중형교

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모두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고 착했느냐, 신실했느냐, 충성했느냐를 보신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인 이영훈 목사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작은교회라는 표현 자체도 인간의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 게 하나도 없는데, 크다 작다 구분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숫자를 자주 따지고 판단하니 거기서 위축되는데,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늘 겸손하고 부흥할수록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권면의 말씀을 전했던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는 “작은교회 목회자들의 말씀을 들



이영훈 목사(왼쪽)가 사모가 투병중인 작은교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이대웅 기자

으면서 도전도 받았고 부끄러움도 느꼈다”며 “문제는 소명감인데, 소명감이 흐려지면 큰 교회가 돋보이고 작은교회가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소명감이 강화되면 작은교회가 아름답고 현재 섬기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목회자 되는 것

이 오늘 다시 들려주시려는 하나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조기 은퇴하고 새벽기도를 통한 부흥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광훈 목사(할렐루야선교교회 원로)는 “작은교회 큰교회 라는 말에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며 “여러분이 섬기는 영혼들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

는데, 작은교회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자신이나 남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고 위로했다.

모임은 참석한 작은교회 목회자들과 순서 담당자들이 모두 함께 나와 축복송을 부르며 마무리됐다. (이대웅 기자)

한복협 작은교회 목회자 위로와 격려

회에서 출발했고, 중형교회는 개척교회에서 출발했다”며 “저는 첫 목회지에 성도가 20명 뿐이었지만, 한 번도 ‘작은교회’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말로 자부심을 가질 것을 권면했다. 김 목사는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섭리가 있고, 섭리가 있으면 사명이 있지 않겠느냐”



지방 교회 지도자들은 미국 CRI와 풀러 등에서 지방 교회에 대한 건설적 재평가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에서도 이같은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성경적 지지를 해준다면 따르겠다는 뜻도 전했다.

지방 교회 지도자들, 한국 교계에 재평가 요청

얼마 전 지방 교회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우리가 틀렸었다”며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

튜트(이하 CRI)의 대표인 헵크 해네그레프가, 이번에는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 지방 교회에 대해 재평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지방 교회 지도자들 “성경적 지적 해준다면 겸손히 따르겠다” 지방 교회 지도자들은 6월 10일 엠베서더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히는 한편, “한국교회에서 우리에게 개선해야 할 점들을 성경적으로 지적해주신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DCP Korea(한국에 있는

CRI·풀러 등 “정통” 결론... 미국 내 긍정적 분위기 전달

지방 교회들 전리의 변조와 확증 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미국 지방 교회측에서 다니엘 도울 씨와 크리스 와일드 씨 등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 기독교계 내에서는 그간 이단 논란을 겪어왔던 지방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CRI, AIA, 풀러신학대학 등이 그같은 평가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평가는 한국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RI “지방 교회들, 기독교 교리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풀러 “그들(지방 교회 교인들)은 진정한 믿는 이들이다”

CRI는 월터 마틴이 창립한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연구소로서, 30여 년 전 지방 교회에 대해 가장 먼저 비판을 한 바 있으나, 최

의 글들을 출판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판단들을 지지하지 않으며, 그런 자료를 출판하지 않는다”며 “6년에 걸친 기초 조사 과정 후, 저는 지방 교회들이 본질적인 기독교 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적 권위의 신학 명문 풀러신학대학 역시 2006년 지방 교회

학측에 방문해 강력히 항의했으나, 오히려 지방 교회가 정통 교회라는 풀러측의 확고한 입장만을 확인한 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챤리티투데이 역시 지방 교회의 지도자인 워치만 니를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하기도 했고, 뉴저지의 하원의원인 스미스 의원은 미국 국회 제111차 회의 도중 워치만 니에 대해 “중국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자”라고 평하며 중국에서 출간 금지된 그의 서적들이 자유롭게 출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방 교회 지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적 선교대국인 한국에서도 지방 교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재평가가 이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길 희망한다”며 “본질적인 것들은 일치될! 비본질적인 것들은 자유를! 다른 모든 것들은 자비를!”이라는 원칙하에 모든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재광 기자)

근 재연구 끝에 “우리가 틀렸었다(We Were Wrong)”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 교회에 대한 비판 자료들이 대부분 CRI의 최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했던 만큼, 이같은 결론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CRI 대표인 헵크 해네그레프는 최근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비록 CRI가 수십 년 전에 지방 교회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몇 개

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풀러신학대학의 리처드 마우 총장, 하워드 로윈 신학부 학장, 베리마티 케케넨 조지 신학 교수 등의 석학들이 2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우리는 그들을 진정한 믿는 이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같은 지체들로 쉽고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모 이단감별사가 이 결과에 불만을 품고 풀러신학대

www.seattleonnuri.com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주 Lake Forest Park에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 은누리교회 (미국 C&MA 교단 소속)에서는 지난 16년간 사역을 담당해 오신 김제은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 1)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2) 전임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 3)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 양식은 은누리교회 website, www.seattleonnuri.com에서 download

최근 인물 사진 1장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포함. (2~4 pages)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설교 2 회분 (CD, DVD, 또는 Website Link)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장소:
Onnuri Church Attn: PSC Chair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1710
Tel: 206-371-5934 (PSC Chair)
Email: psconnuri@gmail.com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서류 제출 및 문의 가능)

제출 기한: 2010년 9월 30일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인가

삼성그룹 인력개발원 교수팀 장, 한국리더십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한동대, 연세대에서 강의해 온 정광섭 박사가 시카고한인교회의 가정교회 목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세미나를 12일, 13일 양일간 개최했다. 정 박사는 조이선교회 실행사, GP선교회 직능이사, yCBMC 지도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컨설턴트 등으로 활발히 사역 중이기도 하다.

최근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가정교회가 성장하고 전 교회가 하나 되는 성과를 얻은 시카고한인교회는 가정교회 목자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이를 교회 성숙과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을 갖고 이번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일 50여명 가량되는 목자들은 양일간 총 10시간의 세미나를 통

해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정의와 활용법, 시간 관리 등의 기술을 배웠다.

세미나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정 박사의 도움을 받아 목자들이 직접 리더십을 정의하고 개인의 사명과 조직의 비전을 정리

정광섭 박사의 "성경에서 찾아내는 리더십"

하는 시간을 갖는 등 워크숍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 박사는 성경적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 딤후2:2을 꼽았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구절이다. 그는 이 구절을 "리더십의 재생산 과정"과 "리더의 5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갔다. 이 구절에 보면, 바울로부터 시

작해 디모데가 가르침을 얻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리더십이 4대에 걸쳐 재생산된다. 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더는 1. 훈련받은 사람이며, 2.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많은 증인)이며, 3. 충성된 자여야 하며(충성된 사람), 4.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자(부탁하라)이며 5. 가르치는 사람(가르칠 수 있으리라)이란 점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확산하는 자로서의 리더를 정의할 때 가장 좋은 모델은 역시 예수님이다. 정 박사는 예수 님은 리더(Christ Like Leader)상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구절로 눅2:52를 꼽았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란 구절이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기록의 마지막 절이다. 정 박사에 따르면,

리더는 정신적이며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지혜)이며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키가 자라 가며)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며(하나님과) 사회적으로도 원만해야 한다.(사랑에게) 즉 전인적으로 성숙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이 이렇게 전인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과정이 바로 리더십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리더십을 가진 자, 곧 리더가 조직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정 박사는 리더부터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



정광섭 박사가 시카고한인교회 목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조한다. 리더가 실력이 있고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리더와 개인 간의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이런 대인관계가 전체 팀 조직으로 확산되면 팀 조직 간에 격려와 상호작용을 통해 큰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신뢰 관계에서 리더는 이 큰 조직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비전 아래 모든 구성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임파워링(empowering) 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며 그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리더십을 확립해야 하는 이유는 조직이 바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조직의 리더는 먼저 조직의 존재 목적을 정의하고 비전과 미션, 가치관을 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을 팀원들과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누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가느냐가 결국 훌륭한 리더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 박사의 강의 후에는 시카고한인교회 목자들이 조별로 교회와 목장의 비전과 목표를 정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명서를 만들어 벽에 붙여 놓고 토론하는 실습 시간도 가졌다. 이 세미나에는 시카고한인교회 목자들 뿐 아니라 서창권 담임목사 등 교역자 전원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 가운데 계속됐다.

(김준형 기자)

삼버그침례교회 창립 32주년 맞이해



삼버그침례교회의 임직자들(맨 앞줄)을 SBC 한인 목회자들이 축하하고 격려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예배 드려

시카고 지역 남침례회(SBC) 한인교회 가운데 만형적인 삼버그침례교회가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며 기념예배와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삼버그침례교회가 가진 교단 내의 위상에 걸맞게 미주남침례회한인일리노이협회의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에 식순을 맡은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많아도 원로 목회자부터 일주일 전 안수를 받은 신임 목회자까지 모두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날 예배에는 한인 외에 일본인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고 코바리 목사 등 일본인들까지 참석해 축하해 아끼지 않았다.

1978년 홍일천 목사를 중심으로 호프만이스테이즈에서 창립된 삼버그침례교회는 이 지역 침례교회 가운데 역사나 규모 면에서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창립 4년만인 1988년부터 미국인 목회자인 로버트 게이트 목사를 청빙해 영어예배

를 시작했다. 한국 선교사의 아들인 그는 삼버그침례교회에서 사역하며 한인들의 사역을 미국 교단에 적극 알리는 전도사 역할도 자처하게 됐다.

2004년 김광섭 전도사가 목사로 임직하며 바로 담임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6년째 목회하고 있다. 김 목사 이후 삼버그침례교회는도미니카단기선교, 미국 국내 단기선교 등으로 선교 활동에 불을 붙였고 현재는 일본인교회에 성전을 빌려 줄 정도로 성장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박상현 목사(성광침례교회 원로)는 "삼버그침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이 지역 침례교회들에게 자랑이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된다"며 "김광섭 목사를 도와 이 중책을 감당할 책임이 오늘 임직자들에게 맡겨졌다"며 격려했다.

김광섭 목사는 "교회를 세우고 32년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온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나는 찬양합니다 "I Praise Concert"

하나님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것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찬양컨서바토리(학장 이경희 목사, 디렉터 전성진 목사)가 매학기 를 마치며 여는 I Praise Concert

색소폰, 하모니카 분야의 학생들 이 무대에 올라 뛰어난 기량과 노력으로 박수를 받았다. 특별히 이번에는 찬양컨서바토리가 야심을 갖고 개설했던 오르간과의 학생 4명이 연주를 선보였다. 다른

를 교수로 초빙했지만 오르간을 가진 한인교회가 드물고 그나마 대어해 사용하기도 용이하지 않아 수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다 최근 전자 오르간을 구매해 수업 장소인 갈릴리교회에 설치하면서부터 수업에 탄력이 붙어 이날 4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서는 기쁨을 토했다.

찬양컨서바토리는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들의 교회 음악을 부흥시키기 위해 뜻있는 목회자들이 모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음악인, 교회가 필요한 음악봉사자" 양성을 목표로 2008년 개교했다.

(김준형 기자)

찬양컨서바토리 종강 기념 연주회

가 지난 12일 갈릴리교회에서 열렸다. 각각의 전공 분야에서 공부와 연습을 매진해 온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한 학기의 결실을 주님과 학우들, 성도들 앞에 선보이는 자리였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피아노, 성악(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분야의 경우, 미주 한인교회들이 비교적 다양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반면,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오르간 연주다. 찬양컨서바토리는 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야 교회 음악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는 비전 아래 2년 전, 오르간과를 개설하고 전문 연주자



찬양컨서바토리 학생들이 아름다운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려는 콘서트를 개최했다.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OPEN 7DAYS A WEEK**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불경기 속에서도 단기선교 멈출수 없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아이티 등 남미지역 중심으로 단기선교 활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애틀랜타 각 교회에서도 속속 단기선교를 떠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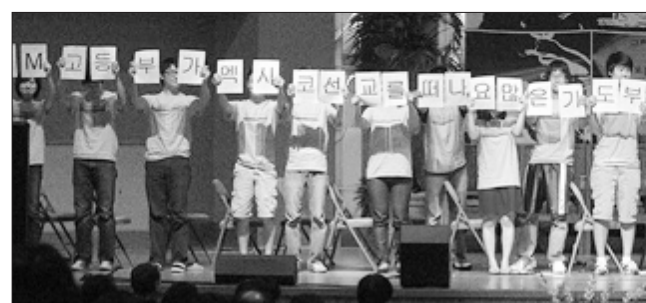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7일부터 14일까지 한어권 청소년들이 멕시코로 단기선교를 다녀온다. 영어권 청소년들도 니카라과로 단기선교를 떠나기에 앞서 지난 2일 파송예배를 드리고 선교 현장에서 선보일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예수소망교회(담임 박대웅 목사)도 6일부터 11일까지 남미 니카라과로 단기선교를 떠났다. 지난 2일, '니카라과의 밤'을 통해 선교를 떠나는 심정과 각오,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받은 선교팀은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했다.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 목사)에서는 지난 30일 코스타리카 선교파송예배를 드리고 최병호

담임목사를 비롯해 33명의 단기선교 인원을 파송했다. 이들은 1일부터 8일까지 선교 현장에서 철저한 불신자 전도에 초점을 맞춰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최악의 대지진을 겪은 아이티로 떠나는 단기선교팀도 있다.



연합교회 KM청소년 단기선교 파송식

슈가로프한인교회(담임 최봉수 목사)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아이티 단기선교자 예비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아이티로 떠나는 단기선교팀도 있다. 많은 30여명이 지원했고, 연령대도 고등학생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각자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 중이다. 이번 선교기간은 6월 21일부터 26일까지다. 슈가로프교회가 찾아가는 곳은 아이티의 수도

포토프레스 및 인근 지진피해지역인 네오간 지역이다. 이곳에서 박성한 선교사 부부와 함께 현지 어린이 사역(600명 대상), 고아원 어린이 사역(200명 대상), 노동사역(고아원 페인트 사역), 대통령궁 주위 및 국립대 캠퍼스 전도, 현지인 가정 민박체험 및 문화체험, 땅 밟기 및 여호수아 기도회 등이다.

최봉수 목사는 "지진이 나는 바람에 그곳에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곳은 이전부터 우리의 가슴에 있던 땅이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성령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준비시키신 것 같다. 이제 떠나는 단기선교팀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한 선교사는 "아이티의 잃어버린 영혼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희 기자>

청소년 학부모 세미나 두번째 강의 시온연합감리교회서



부모와 십대 자녀를 이어주는 30일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화는 무릎과 무릎이 맞닿는 위치에서 이뤄져야 한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해 봤을 주제. '성서적 자녀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시원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학부모 세미나' 두 번째 강의가 13일 시온연합감리교회(담임 송희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는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법'으로 사람의 기질과 5가지 사랑 표현방법, 의미 있는 대화하기 등을 다뤘다.

청소년과 깊은 대화를 원하는 부모라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기질'이다. 아이들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정보 습득의 경우 말로 설명을 하면 알아듣는 아이가 있는 반면 반드시 만져보고 경험해 봐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 항상 먼 곳을 다니게 되는 조종사의 경우, 어려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였던 경우가 많다.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는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실제적) 기질과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질이 있다. 전자의 경우 교육자가 후자의 경우 철학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추상적 기질을 갖고 있는 부모가 실제적 기질의 아이와 대화하고자 한다면 아이에 맞는 대화법, 좀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한다.

정비 저장의 경우를 보자.

책을 정리해도 종류와 과목별로 정리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풀더 하나에 넣어 정리하는 아이도 있다. 전자의 경우 순차적 정리를 하는 아이이다. 이는 정리 방법의 차이 일뿐 어떤 방법이 우수하다고 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재들의 경우 무작위순 정리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순차적 정리를 하는 아이와 대화한다면 차근 차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무작위순 정리를 하는 아이와 대화하기 원한다면 요점을 먼저 말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대화할 때 크게 '왜?', '그 다음은?', '어떻게?', '무엇을?' 4가지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틀리기도 하다. 나의 아이는 어떤 기질을 가진 경우일까. 부모는 이를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랑을 채워줄 수 있을까. 사람을 크게 신체적 접촉, 언어, 질적 시간, 선물, 봉사 등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포용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방청소 같은 봉사를 원하는 아이도 있다. 사랑한다는 말에 사랑을 느끼는 아이가 있고 선물에 사랑을 느끼는 아이가 있다. 이는 성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이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고 그 언어로 다가간다면 좀더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 있다.

<김앤더슨 기자>

서로 손잡고 두날개로 날아 오르자



두날개 뉴저지 지역 목회자 모임이 10일 뉴저지성도교회에서 열렸다

두날개양육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두날개 뉴저지 모임은 지난 2월 시작됐다. 6월 10일

정오 뉴저지성도교회(담임 허상회 목사)에서 열린 모임은 두번째 모임으로, 2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두날개양육시스템을 적용

하고 있는 각 교회 소식을 나눴다. 나눔 후에는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상회 목사는 나눔을 통해 "두날개양육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어

고무직"이라고 전했다.

한편 두날개양육시스템에 대한 비판에 대해 목회자들은 "어느 프로그램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해나가는 가운데 은혜 받고 성

두날개 뉴저지 목회자 모임 열려

려운 일도 많이 겪었다. 성도들이 떠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끝까지 가다보면 잘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말했다. 유재도 목사는 "갑자기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꾼이 배출되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장해나가는 것"이라며 비판에 일일이 귀기울이기보다는 양육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지역장 허상회 목사는 "잘 되는 교회들을 직접 보고 배우고, 힘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고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윤주이 기자>

미동부 5개지역

목회자 체육대회 열려

뉴욕목사회에서 주최하는 미동부 연합 목회자 체육대회가 6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대회는 키세나팍 캠프 파하도 마리오 파크에서 열렸으며 축구, 배구, 족구 종목 경기가 펼쳐졌다.

뉴욕 목회자들은 축구 우승을 차지했다. <윤주이 기자>



미동부 연합 목회자 체육대회가 15일 키세나팍에서 열렸다.

여드름 완치!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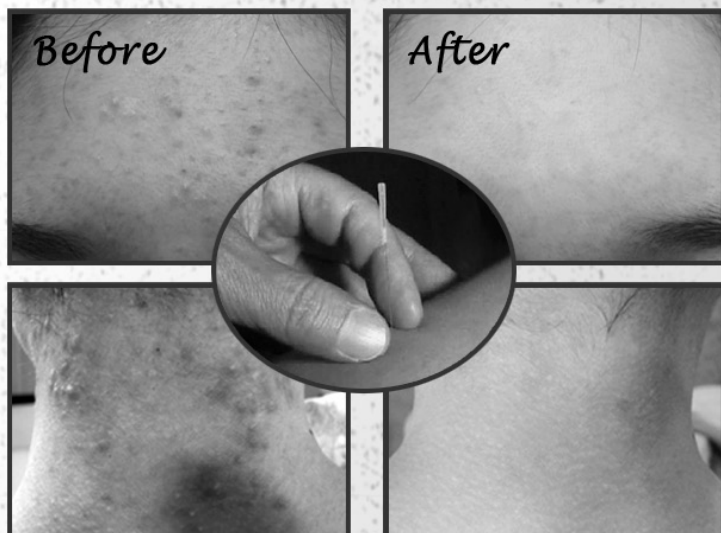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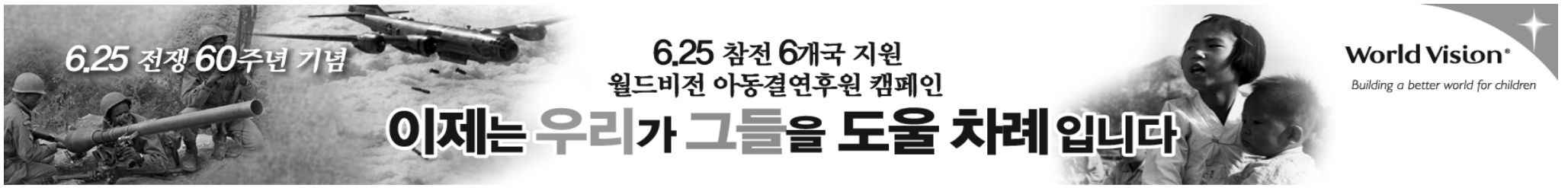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el. 213-380-0835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6.25 참전 6개국, 현재 그들의 삶과 월드비전 사역②

콜롬비아 남미 대륙, 유일한 참전국가

남 북 아메리카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콜롬비아. 서부 해안선과 동쪽으로 안데스 산맥을 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콜롬비아는 1960년대 조직된 공산주의 게릴라 그룹의 반 정부 활동으로 큰 혼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총 3백만 명의 민간인이 집을 버리고 전기, 수도 시설이 없는 피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콜롬비아는 연 인원 5,100명에 달하는 1개 보병 대대 병력을 파견해 163명의 사망자와 44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8명이 포로로 잡히는 희생을 치렀다.



당면 과제
 ▷ 마시스트 게릴라 조직(FARC)의 반정부 활동으로 3백만 명 이재민 발생
 ▷ 1980년대 국제 불법 마약 거래 및 인신 매매 중심지
 ▷ 부의 심각한 불균형, 상위 20% 인구가 전체 부의 61% 차지

월드비전 활동 연혁
 ▷ 1960년: 월드비전 목회자 세미나 개최
 ▷ 1971년: 아동 결연 후원 프로그램 시작
 ▷ 1990년: 자연 재난(화산, 산불, 홍수) 피해자 구호 활동, 161개 프로젝트에서 42,200명 아동에게 수혜
 ▷ 1999년: 강도 6.0 지진 발생으로 1,185명 사망, 48,000명 피난민에게 긴급 구호 활동 펼침

현재 월드비전 사업
 ▷ 사업 부문 : 교육, 보건, 경제 개발, 사회 정의
 ▷ 20개 지역개발 사업장, 74,297명 아동 등록, 45만 명에게 수혜
 ▷ 20,792명의 콜롬비아 아동들이 결연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Country Profile)		콜롬비아	한국
전체 인구		45,600,000	48,636,000
평균 수명		72.5 세	79 세
5 살 이하 유아 사망률		21/1,000 명	5/1,000 명
문맹률		7%	2.1%
식수 사용 가능 인구		93%	92%
성인 HIV 감염자		23 만 명	13,000 명
빈곤 계층 비율		16%	4%
일인당 국내 총 생산	1950 년	\$2,089	\$876
	2009 년	\$5,087	\$17,074
종교		기독교 94.5%	기독교 26.3%
		기타 3.5%	불교 23.2%
		무교 1.9%	무교 50.5%



◀ 콜롬비아 난민촌 모습. 콜롬비아는 1960년대 부터 시작된 공산 게릴라들의 반 정부 활동으로 인해 3백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 월드비전은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월드비전의 Peace Builder 그룹에 속한 청소년들이 장난감 TV 세트에서 화해와 폭력 근절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무력 충돌로 인해 고통 받는 청소년들로 Peace Builder 그룹을 조직해 정의와 평화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인디아 의료 지원 통해 부상자 치료 도와

인디아는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큰 국토 면적과 지구촌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이 거주하는 거대 국가이다. 5세기 부터 힌두 문화를 발전시켰던 인디아는 19세기 중반, 영국의 동인도 회사 설립과 함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항의로서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1920년 부터 시작됐다. 1947년 영국은 힌두 국가인 인디아와 무슬림 국가인 파키스탄을 별도로 독립시켰지만 이후 무슬림 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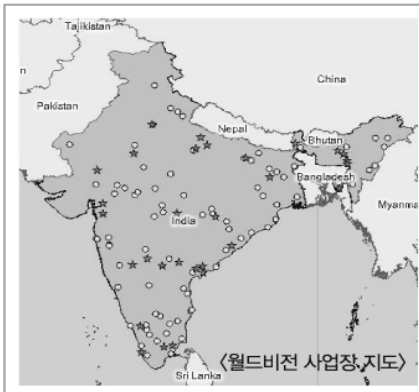
두고 파키스탄과 잦은 무력 충돌을 빚어 왔다. 최근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전세계 12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지역간, 인종간 부의 불균형이 심하다. 인구의 80%가 하루 \$2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6.25 전쟁 당시 인디아는 연인원 627명의 의료 병력을 지원해 60여전 병원에서 부상자들의 치료를 도왔다.



국가 정보(Country Profile)		인디아	한국
전체 인구		1,150,000,000	48,636,000
평균 수명		69 세	79 세
5 살 이하 유아 사망률		76/1,000 명	5/1,000 명
문맹률		39%	2.1%
식수 사용 가능 인구		86%	92%
성인 HIV 감염자		250 만 명	13,000 명
빈곤 계층 비율		42%	4%
일인당 국내 총 생산	1950 년	\$597	\$876
	2009 년	\$1,031	\$17,074
종교		힌두교 80.5%	기독교 26.3%
		이슬람교 13.4%	불교 23.2%
		기타 6.1%	무교 50.5%



▲ 6.25 전쟁에 파견된 인도 군인의 모습



당면 과제
 ▷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과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무력 분쟁
 ▷ 지역간, 인종간 부의 불균형으로 7억 명(전체 인구 80%)이 하루 \$2미만 소득으로 생활
 ▷ 공중 위생 시설 부재로 설사병 만연, 두번째 높은 아동 사망 원인
 ▷ HIV/AIDS 감염자, 250만 명

월드비전 활동 연혁
 ▷ 1949년: 인디아 선교사를 위한 Youth For Christ 집회
 ▷ 1960년: 아동 결연 후원 프로그램 시작
 ▷ 2004년: 쓰나미 재난 당시, 50년의 인디아 개발 사업 경험 바탕으로 35,000 희생자에게 구호품 지원

현재 월드비전 사업
 ▷ 사업 부문 : 교육, 보건, 식량 및 농업 개발, 식수 및 공중 위생, 경제 개발
 ▷ 118개 지역 개발 사업장, 227,108명 아동 등록, 130만 명에게 수혜
 ▷ 38,795명이 아동 결연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195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국에서 긴급 구호 및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전체 모금액 가운데 11.4%를 행정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외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투명한 재정관리와 효과적인 사역으로 지구촌 아동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6.25 참전 6개국 아동결연후원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교회나 기업체는 한국어 안내전화 1-866-육이오-1950 혹은 www.wvkor.org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y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박성근 칼럼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아드니람 저드슨은 미국의 명문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이 열매만 카운트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드슨이 남겼던 다음과 같은 말은 깊이 음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희생한 것이 없다면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그에 앞서 희생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희생만했다면 그것은 그 후에 올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닦아놓은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긴 안목에서 보면 참된 성공은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이 전부 아닙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삶의 열매이건, 혹은 실패처럼 보이는 무모한 희생이건 하

여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 자체가 가치로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의 크기나 경중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느냐입니다. 인간의 보기에 작게 보여도 그것에 충성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큰 일군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 화려하게 보여도 참된 헌신을 쏟아 붓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하나님은 실패라고 말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마 25:14-30)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두 달란트 받은 자와 다섯 달란트

충성이 곧 성공입니다

것을 다 버리고 미안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는 18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처음 6년 동안은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17개월 동안 투옥을 당해 무서운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성의 낭비 같기도 하고, 열매 없이 세월만 허송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

나님은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긴 안목에서 인생을 보고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장 주어진 몇 가지 열매만 가지고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금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도, 또 조금 망했다고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주

받은 자를 어떻게 칭찬 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한 충성, 여기에 주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작지만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니까요. 살롬!

방동섭 칼럼



방동섭 목사
미주성산교회

경제가 안 좋은 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라면을 만드는 회사이

16cm에 온 몸에 가시 같은 돌기가 돌출해 있는 괴이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작은 동물이다. 이 도마뱀은 어떤 면에서 생존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우선 그 작은 도마뱀 주변에는 치명적인 적들이 많다. '가시도마뱀'이 사는 지역에는 '인랜드타이판'(코브라과의 독사)이라는 뱀을 위시하여 이름만 들어도 오싹한 세계 최강의 독사들이 수십 종류가 사는 곳이다. 그러나 이 작은 '가시도마뱀'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그 뱀이 매일 매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자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뱀이 사는 곳은 연중 강

시피 한 사막지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특이한 신체 구조 때문이다. 온몸이 날카로운 가시로 덮여 있는데 그 가시 사이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몸 전체에 작은 돌기가 솟아 있다. '가시 도마뱀'은 바로 그 수많은 돌기를 이용하여 물을 모으고 돌기들 사이에는 있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그 모은 물을 몸으로 빨아들인다. '가시 도마뱀'은 피부에 약간의 습기라도 닿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엄청난 집중력으로 습기를 모아 미세 구멍을 통해 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위에 공급한다. 그렇게 모은 물의 양은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매우 적은

가시 도마뱀의 기적

다. 불경기에는 라면 한 개가 한 끼 때우는 데는 최고라는 것이다. N 라면 회사는 지난 해 1조 원대의 라면을 팔았고, 뒤늦게 라면 시장에 뛰어 든 O 식품회사도 9천 700억 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라면을 팔았다고 한다. 유제품 전문업체로 유명한 Y 회사도 '비빔면'이라는 즉석 국수를 5억 개나 팔았다. 호주의 거친 사막에 사는 '가시도마뱀'은 몸길이는 평균

우렁이 거의 없는 곳인데 이곳에 부는 바람은 초강력 헤어 드라이어 같아서 어떤 생물이든 지 이 바람을 맞으면 타죽을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삭막한 대륙에서는 거의 모든 생물들이 생존에 필요한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가시도마뱀'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이 도마뱀이 물이 전혀 없다

양이지만 그것은 가시 도마뱀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생존이 가장 힘든 곳에서 넉넉히 살아가는 '가시 도마뱀'의 이야기는 살아가기 힘들다고 불평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인생들을 부끄럽게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피부에 닿은 약간의 습기라도 놓치지 않을 정도의 끈질기고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삶의 현장이다.

양성필 칼럼



양성필 목사
베델한인교회 행정담당

호랑이와 사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털 색깔과 무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죽을 벗겨 놓으면 동물학자도 어느 것이 사자이고 어느 것이 호랑이인지 식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겉모양으로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말과 행실을 바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중언부언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중언부언이란 뜻은 '했던 말을 반복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리수리마수리' 처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듯이, 마음의 중심은 없고 의미 없이 되뇌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식으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식의 기도라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

님께 나아가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릴까요? 웬만한 정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중학교시절에 'mymy'라는 손바닥만 한 소형 카세트 플레이어가 나왔습니다. 그때 학생들이라면 하나씩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갖고 싶어서, 어머니께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워낙 절약하시는 분이어서, 저는 제일 싼 것이라도 사주십사 말씀드렸는데, 막상 전자상가에 가시더니 제일 좋은 것을 사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에 알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자식

에게 제일 좋은 것,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제일 좋은 것'으로 사주시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모시고만 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려 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세상에서 내게 제일 선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며,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히11:6)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믿음이 바른 기도와, 응답을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저는 그때에 알았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기도에 대한 책을 특하나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까, 그야말로 반드시 응답받을까를 무척이나 연구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아냈습니다. 솔직히, 이 비결을 그냥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이 비결을 알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독교일보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비결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공부하는 겁니다. 좋은 선생한테서 배우는 것이고, 좋은 교재가 있다고, 좋은 공부방이 있다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

니다. 우선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비결 없습니다.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10분이라도,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길만이 응답받는 확실한 비결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사실은 응답받는 분들은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실이 응답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응답받을 사람은 믿고 구하기 때문입니다(마21:22).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다면 응답 받을 일만 남았으므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미국 사람들의 평생소원!!!

미국대륙 횡단 여행

오는 7월16일 20박21일 여정으로 로스앤젤레스 출발!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3,000달러.

LA - 레이더호 - 솔트레이크시티 -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 - 옐로스톤 국립공원 - 데블스타워 국립모뉴먼트 - 러시모어 국립모뉴먼트 - 크레이지호스 - 배들랜드 국립공원 - 시카고 - 나이아가라 폭포 - 허버드데 - MT - 뉴욕 - 워싱턴DC - 루레이동굴 - 세인트루이스 -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 덴버 - 신의 정원 - 로얄고지 - 블랙캐년 - 아치스 국립모뉴먼트 - 캐년랜드 국립공원 - 모뉴먼트밸리 - 레이 파울(크루즈) - 플래그스태프 - 피닉스 - 치리카후아 국립모뉴먼트 - 톰스톤 - 사구아로 선인장 국립공원 - 알고도네스 모래사막지대 - 데저트 핫스프링스 - LA

- ★ 7월16일 LA를 출발, 뉴욕을 최종착지로 하는 9박10일 여정의 서-동 대륙횡단 편도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1,500달러.
- ★ 7월25일 뉴욕을 출발, LA를 최종착지로 하는 12박 13일의 동-서 대륙횡단 편도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1,800달러.

관광 가이드에게 하루 10달러씩 통상 내게 되는 팁 없음!
대륙횡단 여행에 17차례나 나선 여행 전문가이자 LA 여행클럽의 간사 지미 김씨가 이번 대륙횡단 여행의 인솔자로 나서게 됩니다!

28주 40도시 17국립공원 50명소 1만 Mile의 대장정.
전 일정 Bus로 이동하는 미국식 배낭여행.
여행 동호회 'LA 여행클럽'이 이지 LA투어와 손잡고 올여름 대륙횡단여행에 나섭니다.

문의: (213) 388-0777 또는 이메일 latravelclub@hotmail.com
(EZ LA 투어 문의전화는 미 서부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 4055 Wilshire Blvd, #LLA3, Los Angeles, CA 90010 USA

현순호 칼럼



현순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 지역 한인교회 총무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것을 재혼이라고 하는데 그 형태도 여러 가지다. 반려자가 죽었을 때나 이혼 후, 혹은

은 상대자가 가출하고 행적을 감추었을 때나 또는 한국의 6.25 전쟁으로 인한 안타까운 헤어짐 등 사연도 각각양색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혼했다고 하면 왜 다시 결혼하게 되었는지? 첫 결혼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또 재혼하는 상대가 지금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사람인가 알고 싶어 한다. 사실 본인 자신도 초혼 때 보다는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 더욱이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에는 결단을 내리기가 매우 힘들다. 새로운 양 아버지(또는 양 어머니)가 친 자녀처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황혼 결혼일 때는 몇 배 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나이에 무슨 시집장가인가,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하

지. 재혼해서 상대자의 비유를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늙으면 자기 몸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는데 고집은 세지고 남의 이야기는 잘 안 듣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하는 어린애 같

재혼

은 속성이 강해지는 때인데 그런 것을 알면서 재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 할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재혼 할 가능성이 가지고 산다. 성경에도 반려자가 없을 때에는 재혼 하는 것을 당연시 했다. (마22:25-30&고전7:39) 재혼 하는 것은 두 사

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주위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통계적으로 보면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 되고 장수하며 사회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늙어 갈수록 아픈 곳이 많아 지는데 그때 마다 자녀들의 신세를 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곁에 반려자가 있으면 병원에 동반해주고 물과 약도 챙겨주고 맛있는 음식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옛날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옆을 떠나고 갈 곳도 오라는 곳도 별로 없어져 정서적으로 외로워 질 때에 누구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부부 뿐이다. 얼마 전에 한 부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가 죽은 후에 재혼 하지 말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라고 자녀들 앞에서 약속을 하게하고 만일 그대로 안 하면 악귀가 되어 찾아와서 두 사람을 죽이겠다고 공갈과 협박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까지 했겠느냐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자기는 먼저 가지만 자기 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 여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하는 마지막 말이 아닐까? 그럴 때에 먼저 떠난 사람의 진한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을 오래 간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는 비결이 몇 가지가 있다. 절대로 전 번 결혼에 대해서는 서로 묻지 않고 또 알리고 하지도 않는다. 누가 이야기를 꺼내면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자녀들에게 친 자녀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잘 해 준다. 그들의 생일이 나 그 외 특별한 날에는 축하카드와 같이 선물을 보내고 전화하고 자주 대화를 나눈다. 더욱 엄격한 일은 양쪽 자녀들 때문에 현재의 부부에게 금이 가지 않도록 서로 매우 조심한다.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단호하게 끊는다. 그 부부는 서로 상대의 건강을 챙겨주는 일은 물론 같이 운동하고 대화도 많이 하며 교회 일에 헌신적이고 자원봉사 일에도 적극적인 멋진 삶을 살고 있다.

박종길 칼럼



박종길 목사 일반인온누리교회

우리는 종종 내게 없는 것들로 인해서 불편을 겪기보다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만이나 훈장이 되는 것을 경계했던 이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더 높고, 더 영광을 받으려고 정신없는 삶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가지려 했던 사막의 교부들이 여러 가지 유혹과 세속의 가치관에 혼란스러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책 가운데 나오는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고통'에 대한 교훈을 주는 글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한 은둔자가 사막에서 살았다. 그의 거처에서 가장 가까운 샘이 18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한번은 그가 물을 길러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자신에게 말했다.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샘 근처에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한 사람이 그가 디딘 발자국 수를 헤아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은둔자가 물었다. "그대는 누구이기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이다. 그대의 발자국 수를 헤아려 상급을 베푸라는 명령을 받았다!" 은둔자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더욱 강하게 했다. 그리고 샘에서 10킬로미터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사막의 교부들

평소에는 모르지만 이사를 가거나 책상을 정리하다보면 불필요하게 소유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규장출판사에 나온 "깨달음"이라는 책은 AD 3세기에서 5세기에 사막에서 생활했던 사막의 은둔자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무소유와 자기부정의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막의 교부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홀로 서는 단독자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금식과 고독, 침묵과 기도, 무소유와 독신의 삶을 지향하면서도 스스로 택한 고행의 삶이 또

한방 칼럼



봉승전 원장 경희한방병원

웨스트 LA에 사는 초등학생 B군은 비염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밤

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치열이 고르지 못하고 들쭉날쭉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턱과 입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얼굴형이 이상하게 변형되기도 쉽다. 구강이 변하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떨어져 소화기능도 약해지게 된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에도 지장을 주는데, 심할 경우 말을 할 때 침이 많이 튀어나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수도 있다. 학생들의 경우는 성적도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 공부할 때 뇌에서 필요한 산소를 코로부터 원활하게 공급

의 차가운 기운에 습격을 당하면 기운이 막히게 되고, 기운이 막히면 열이 발생하여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결과로 콧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알러지성 비염도 여기에 속한다. 알러지란 정상적인 사람들에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특이한 이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알러지성 비염을 한방에서는 폐한이라고 부른다. 즉, 폐가 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코를 포함한 호흡기가 약하다는 뜻으로 근본 원인을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 것을 답히는 데에는 체질을 바꾸는 문제이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통하는 것은 침과 약으로 금방 해결이 된다. 즉, 알러지성 비염 보다는 누런 콧물과 코막힘 그리고 급성 축농증은 비교적 쉽게 한방으로 해결되는 편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를 소개하자면, 손가락이 잘 통하는 신체기관이기 때문에 양손을 20~30초간 비벼서 아이의 코를 가볍게 감싸 줌 다음 숨을 쉬게 해 보면 증상이 조금은 완화된다. 콧잔등의 한가운데에서 양옆으로 가다가 눈동자와 만나는 부위를

철마다 괴로운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

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코가 막히고 자다깨서 답답하고 세계 풀다 보니 코가 혈에서 코피도 자주 난다. 머리가 멍하고 공부하기가 불편할 때도 많다. B군 같은 비염환자들은 몇 년씩 이비인후과를 다녀도 다닐 때만 잠깐 괜찮다가 얼마 있으면 또 재발해서 다시 병원을 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더욱이 비염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후유증도 남겨서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비염이 몇 년씩 계속되다 보면 아이들은 코로 숨을 쉬

받을 수 없어서 머리가 멍하기 때문에 공부가 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코는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바깥의 차가운 공기에 자극을 받아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비염이다. 비염을 맑은 콧물이 나오는 비염과, 누런 콧물이 나오는 비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맑은 콧물은 호흡기가 식어서 된 염증이고 누런 콧물은 호흡기에 열이 생기는 염증이다. 즉, 원기가 약하거나 바깥

러한 비염의 치료는 염증부터 치료하되 원기를 돕고, 바깥의 차가운 기운 때문에 차가워진 폐를 따뜻하게 해주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다. 한방에서 비염의 치료는 치료가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이렇게 원인을 보고 치료를 하면 알러지 체질도 정상 체질로 만들 수 있다. 때로는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비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럴 때는 누런 콧물이 나오거나 이때는 비염만 치료할 게 아니라 위장을 잘 다스려서 인체가 하나로 잘 통하도록 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차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한의원에서는 이 혈자리에 부작침을 붙인다. 집에서 엄마들이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었다 내렸다 하면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해져 비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 창이자, 신이화, 세신 등은 모두 코의 점막이 부은 것을 가라앉히고 코 안의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약재이다. 창이자는 약재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볶아서 색이 누렇게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약재를 10g 씩 배합해서 차처럼 끓여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기독교일보, 아주관광의 협업 프로모션에 의한 특별가격!



출발일: 9월 27일, 10월 25일

기독교일보와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성지 순례



이스라엘 6박 7일

\$2800 \$2150

방문지: 텔아비브, 예루살렘, 마사다, 쿨란, 갈릴리, 가버나움, 베들레헴, 가이사라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10박 11일

\$3300 \$2599

방문지: 카이로, 시나산, 타바, 에일랏트, 페트라, 암만, 느보산, 예루살렘, 사해, 쿨란, 텔아비브, 옴바, 갈릴리, 가버나움

- 1. INCLUDE 갈릴리 유람선, 호텔/차량/식사 비용, 가이드, 국제선 항공권
- 2. EXCLUDE 비자 FEE, 이스라엘 출입국세, 뱃산으로의 국경통과시, 실로암 입장료
- 3. OPTION 시나산 낙타등반, 흥해해저 수족관, 가이드/드라이버 TIP, 식당 TIP, 음료, 기타 개인 소비비용

※ 자세한 일정과 호텔/식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el. 213-388-4000

http://www.usajutour.com, aju@usajutour.com, ajutour@hotmail.com(LA본사) Fax. 213-387-1006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이머와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이머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혜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 · 신용 · 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김기형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이삿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미소를... 항상 정성을... 항상 친절을...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은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은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CD - DVD
- 영상-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SK smart-naephone

- SK한국전화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213-435-0608

반값으로 할수있다!

-차바디수리 50% 절약-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침대커버/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MR 박을 찾아주세요!

CITI BLINDS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 미국 \$

당일 동시 (고액 전문)

(213) 388 - 4989

소액도 가능합니다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K.KOH 루핑

Ll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컴퓨터 HIS.COM 출장수리전문

오픈기법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컴퓨터 조립, 공무,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DVR/IP CAMERA
- 4CH DVR \$1,199

213-810-4000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윈도우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견적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돌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엔브랜트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한대, 휘나, 삼성등만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이아전 1위

에어컨 수리 & 설비 전문업체

323.525.0011 / 213.200.5388/amazingaircon.com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6월 21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교대학원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아이토크비비와 추신수 선수가 함께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무제한 로컬/장거리/한국포함 국제전화가 단지 \$9.99/월

한국 대표팀이 승리할 때마다 1개월 무료혜택!
당, 6월 11일-6월 30일 신규가입자에 한함

따르릉~
한국팀이 이겼다고 전화왔어요!

대한민국!

아·이·토·크·비·비
iTalkBB

Verizon AT&T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글로벌 플랜 \$9.99/월

TAX 포함 첫 3개월간, 이후 15개월간 \$24.99/월

로컬/장거리/한국포함 27개국 무제한 국제전화
음성서함, 발신자 표시, 3시간 통화, 착신전환 등 부가 서비스 무료제공

글로벌 플랜 \$14.99/월

TAX 포함 첫 3개월간, 이후 15개월간 \$34.99/월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지금 가입하시면, **30일 환불보장**

- ☞ '나만의 한국전화번호'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 '간편한 전화카드 기능'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 개통비(\$29.99) 면제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는 유지하고 싶지만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걱정인 분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가 많으신 분
- 한국 등에 국제전화를 많이 거시는 분
- 미국 인터넷 환경에 맞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 영아가 불편해 한국어 고객지원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 외출시에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국제전화를 걸기를 원하시는 분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 한인 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사업자 상담 전화: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오후 1시 30분(EST)

아·이·토·크·비·비
iTalkBB

Joins
AMERICA
www.koreadaily.com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형구서 대신 안전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태극 전사의 16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한국에서의 명차 에쿠스가 미국에 드디어 옵니다.

\$99을 내시고 예약을 하시는 분께 명차를 우선적으로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6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현대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3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199/3YR STK:031704



2010 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2,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99/3YR STK:10131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1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 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59/3YR STK: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1,9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 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59/3YR STK:049539



6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2007 BMW 328I WHITE STK:PZ70863 **\$21,8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P018925 **\$28,890**

2005 NISSAN FRONTIER SILVER STK:P461103 **\$10,890**

2008 NISSAN ALTIMA SILVER STK:P226495

2009 TOYOTA SIENNA LE BLUE STK:P277257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9 HONDA ACCORD WHITE STK:P021316A

2007 CHRY TOWN&COUNTRY RED STK:P304471

2005 HONDA PILOT EX BLACK STK:025133BA

2007 HYUNDAI AZERA LTD GRAY STK:P185167

2008 HYUNDAI AZERA LTD SILVER STK:P295894

2009 HYUNDAI ELANTRA SILVER STK:P618846

2008 HYUNDAI ENTOURAGE GRAY STK:P052717

2009 HYUNDAI GENESIS SILVER STK:P031934

2009 HYUNDAI GENESIS WHITE STK:P048693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P586665

2003 MINI COOPER CONV. PURPLE

STK:568848A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8 NISSAN ALTIMA GRAY STK:P199144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타운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앤디 킴



스티브 박



지니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SM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ive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